自由의太極旗아래맞은民族의첫慶事

莊嚴하다! 三千里疆土에歡喜充滿
同胞여! 自由의 "鐘소리" 들었는가?

그날…기미년三월초하로날은, 조선민족의 피에저즌, 독립선언의 역사적날이엇다. 오늘…三월一일은 그때기미년三월一일을, 스무여덟해만에맛는, 민족해방의, 감격적 기렴일이다. 三천만이여! 오늘서울종로네거리에서 울린, 자유의종소리를, 드럿는가! 독립선언서의, 랑독을, 드럿는가! 장엄하고 위대하다, 세기적 기렴일인 오늘三월一일! 하늘도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 해방의 뭇박게 三천만의 환희는터지고야말엇다 오늘이때 전조선 방방곡곡에서 이루워진 태극기의 바다와 천지를진동식히는 독립만세의 소리를 우리는 저一기미년三월一일의 독립투쟁당시의선물로서 바더야할것이다

「感淚」흘리며 "獨立宣言" 朗讀하는老鬪士
普信閣압式典에數十萬市民參列

이날아칠 하날은 흐리고 날세는 싸늘하엿다 그러나 다시날은 "온화한봄날로 개여서 밝은태양의 빗은 대지에 네려쪼이고 무려수十만의 민중이 소리치며 모여드는 흥분의 분위기에 싸혀 세기적 기렴식전은민족의 환호리에 막을여럿는데 회장에는 독립운동의선구자 민주의원의장이승만(李承晩)박사 동총리김구선생( )동부의장김규식(金奎植)박사를 비롯하여 림시정부요인、三十三민중의오세창(吳世昌) 권동진(權東鎭)씨조선의독립을진심으로축복하는 하一지중장 러一취소장등열석한가운데 역사적막이 드듸어열이엇다、「스피一카」를 흘러나오는、지도자의소리! 우리는、이마듸 마듸울려오는소리를、폐부에삭여、완전독립을、맹세하엿노라、완극히、이날식전에서、오세창씨의 독립선언서랑독이 시작되자 만장은 그때三월一일을회상하여 혹々늣기는우름소리로 한때식장은 침울한공기에휩싸엿엇다 조금뒤에울여온인경(人定)의우렁찬소리 「三천만의자유의종소리를 기억하라」고웨치는소리! 아 二十八년 만에울리는종소리에 그누가 감격하지안으며 기뿌지않을까 식장의 중앙에 안저있는 백발의 독립투사들의 눈동자에는 굵다란기쁜눈물이 어리고 목메인소리로 대중의 단결을 부르짓는 힘찬소리에 운집한군중은 환호로 답하였다

三十三人에記念品贈呈

이날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기념식전에서 오세창(吳世昌) 권동진(權東鎭) 두선생을 비롯하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三十三인에게대하야 기념품을증정하얏다

運動場、公園、廣場等 處々에서記念盛大
萬歲聲裡에長安의慶祝行進

밝고야말 이날은 마침내 밝고말엇다 三월초하로 유난하도 저해빗은 찬연도하다 땅을치고 울어야 조흐나 하늘을 우러러 웃어야조흐나 울어도 시원치안코 우서도시원치안흔 이날의감회 천만겨레가 다가치 느끼는 한마음 한뜻 엇지할소냐 二十八년전 이날이순간 우리는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맹서하얏든가 三천만동포여 또한번우리는 차거운손을 설레이는 이가슴 이머리에 언저노코 지난날을 종용히 생각해보라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원통하얏든가 그러나 광영의이날 원한의이날은 다시금밝것다 이날 원장안의 가가호호에는우리에레국기가 가벼운봄바람에나붓긴다 종로보신각(普信閣)압페서열린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주최의기렴식전에참가하얏든백만시민은 발버리를돌려 또한번서울운동장에 수만명 빠고다공원에 수천명여기저기 처처에서 열린기렴식전에 참가하야 이날을한마음으로 경축하엿다 손과손에태극기를들은 청년 학생 시민 남녀노유들은 「대한독립만세」를절규하며 축하행진을하야 완장안은마침내 독립만세의함성으로뒤흔들리고 기빨의바다로웁결첫다

有名無名의英靈이시여 "平安히쉬소서"!
各官公署에서도慶祝式典을擧行
正午에三千萬「한마음」으로默念

을사(乙巳)、경술(庚戌) 기미(己未)이후 생(生)갈이못한유명 무명의 온 선열과 위국열사들이시어! 우리의 이한순간이、보이시나잇가! 해방된오늘정오 묵상으로 우리는처음으로 백일아래서 천의영을 우러러 뵈옵고명복을 비나이다 이리하야 이순간 길가는사람、밧가는지아비、지어미는 마음을 모아 선열을추모하는 마음의 향을살워 본욱(芬郁)을 상승케 하여 선열의뒤를 따를것을굳게굳게 맹서하는것이엇다 그리고 서울안 각관공서는물론 각학교 이박게 각지방에서는 모다경축식을 거행하고 기념행사를 올려 뜻있게 마치엇다

해방후처음맛는 어둡전 이야말로 우리가 지난三十여년동안 남몰래그리나 경건한마음으로마치고 보내는동안에 축척한울분과 맹서를 한거번에폭발시키어 전무후무의 대정황을 이룬것이다

獨立宣言記念
本社에서嚴肅擧行

본사에서는정오본사편집국에서 전사원이모혀서二十七회독립선언기렴식을엄숙히거행하엿다 번저국기에대한경례가잇고순국선열에대한 추념과고고하송진우(故古下宋鎭禹)선생이하 물고사원에대한추념이잇슨후 본사주간설의식(薛義植)씨로부터 독립선언서의낭독과감회사(感懷辭)가잇슨다음 대한독립만세와동아일보만세를각각三창하고 식을마첫다

各宗教側의三一禮拜

이날시내각종교단체에서는이날을가장성스럽게기렴하엿다 우선 새벽六시에 은은히 울려나오는 천주교 종소리에호응하야 시내수천교도는동교당에참례하야三·一기렴특별기도회를집행하엿고 기독교측에서는상오九시부터 정동례배당에서 三천여명신도들이합동례배를경건한가운데올리엇다 또불교측과 천도교측에서는 각각정한시각에 신도를모화노코 성스러운三·一의성식을거행하엿다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

萬歲의暴風속의國慶日의記念式

◇寫眞【上】은鍾路普信閣앞記念式典에參列한百萬市民【中上】은金奎植副議長(左側이金九總理)의先唱으로大韓獨立萬歲부르는光景【中之中】은吳世昌先生의獨立宣言書朗讀【中下】는이경을울리는光景【下】는市民의慶祝行進

青龍刀가진怪漢
◇鐘閣압에서被捉◇

一일아침 역사적인 경축행사가 종로 보신각압페서 엄숙히 진행되고있는 틈을엿보아 요인에게 위해를가하려는 피한七명을 시내종로서원이 발견하고 종로서원의응원을어더 시내봉익정 이칠복(李七福ㅣ假名)(二九)외三명을 인산인해를이루운 중간압 현장에서 대격투를 한후 체포하엿는데 현장에서 흉도(青龍刀)한자루를압수하엿다

謹告 「法廷에나타난三一抗爭」記事는完了되엿다